

建築界뉴스

本協會 韓昌鎭 會長 建築士 海外進出 問題協助 建議

本協會 韓昌鎭 會長은 建設部 海外協力官室을 禮訪하고 建設輸出에 建築分野가 접하는 比重을 감안, 建築士協會 活用과 建築士들의 海外進出問題에 적극 協助해 줄 것을 建議했다.

光復 30年 記念 綜合展示館 起工

4月 25日 汝矣島에서

光復 30年の 民族의 歷程과 國家發展相을 한곳에 모아 展示할 「光復 30年 記念綜合展示館」이 4月 25日 上午, 서울 汝矣島에서 着工됐다.

1만 4천坪의 空地위에 民族館, 光復館, 6.25館, 現在館, 未來館 等 1천 5百坪 넓이의 展示館을 비롯하여 5百坪의 野外劇場, 5천 3百坪의 野外展示場으로 꾸며질 이 綜合 展示館은 오는 7月末에 竣工되어 8月 1日부터 開館되어 100日間 一般에게 公開한다.

展示회가 끝나면 이 綜合展示館은 貿易振興公社의 輸出商品展示場으로 使用할 予定이라고한 다.

建築許可 竣工檢査 不許

政府規定 規格문틀 시멘트製品 안 쓰면

建設部는 오는 7月 1日부터 建築許可를 받는 住宅에 대해서는 政府에서 規定한 規格 문틀, 문짝 및 시멘트製品을 안 쓰면 建築許可와 竣工檢査를 해 주지 않을 方針임을 市道 및 住宅建設業者들에게 示達했다.

建設部는 지난 3月 29日字로 49種의 문틀 規格과 벽돌, 블럭 等 시멘트 製品의 規格, 強度를 決定 告示한 바 있다.

이같은 措置는 建築資材의 浪費를 막기 위해 取해진 것이며, 앞으로 다른 建築資材에 대해서도 規格品使用을 擴大해 나갈 方針이다.

主要産業施設等 建設部에서 建築許可

專門家들로 「建築計劃委」設置

工團 內 小工場 任意 增築 허용.

建設部는 建築法을 改正, 建設部안에 各界 專門家들로 構成된 「建築計劃委員會」를 두고 主要産業施設과 國家的 象徴物이 될 主要建物の 建築은 이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建設部가 直接 許可業務를 取扱하기로 했다.

4月 25日 建設部에 依하면 이제까지 建築許可의 權限이 모두 市·郡에 委任되어 있어 建築 專門職 公務員이 不足한 市·郡에서 國家的 主要 施設을 許可할 때는 設計圖 확인조차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指摘하고 앞으로 主要 施設物의 建築은 建設部가 直接 許可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建設部の 직접 許可對象이 될 建築物은

- △ 産業基地 開發區域안의 主要工場
- △ 그 밖의 國家基幹産業施設
- △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庁舍

△ 全國의 主要團體

(例: 勞總, 商工會議所 等)의 庁舍

△ 將來, 國家의 象徴이 될 建物(例: 記念館 等)

△ 其他 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主要美觀地區 建物等이다.

또한 建設部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일일이 市·郡의 許可를 받아야 했던 工團안의 小規模 工場 增築 等은 앞으로 市·郡의 許可없이 할 수 있도록 建築法을 改正하여 다음 國會가 열리는 대로 同改正案을 提出할 方針이라고 한다.

大韓建築學會 理事陣 改選

大韓建築學會(會長 金熙春)는 任期滿了된 15名의 理事를 새로 選定했다.

이번에 留任 및 新任된 理事는 다음과 같다.

(留任理事)

金光文 朴麟浩 鄭日榮 金正澈 吳雲東 辛鉉植 朴秉珞 尹定燮 尹一柱

(新任理事)

朱京在 趙炳琪 元正洙 朱鍾元 李鍾相 趙恒九

'75年度 第12回 建築士資格試驗 一級474名, 二級 821名이 応募

今年度 第12回 建築士 資格試驗이 지난 4月 26, 27 兩日間に 弘益大學校와 京畿工專에서 各 實施되었다.

이번에 總 志願者는 一級이 605名中, 応募者는 474名(78%), 二級 總 志願者 971名 中 応募者는 821名(84%) 이었다.

기존 建物에도 消防 施設

內務部 消防法 等 14個 改正案 마련.

內務部는 5月7日 現行 消防法上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두어 消防施設을 갖추도록 規정을 폐지하고, 建築許可의 대상물의 規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등을 內容으로 하는 消防法 改正案등 14個 對民關係法의 改正案을 마련했다.

이번 內務部가 마련한 政正案에 따르면 消防法의 경우, 新築이 아닌 공연장, 집회장, 카바레, 유흥장, 호텔, 병원, 위험물 제조소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어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消防施設을 갖추도록 한 消防法 附則 第3項과 同施行規則 附則 第3項을 삭제,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이같은 消防施設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治安本部 당국과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消防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消防施設을 갖추도록 한 경과조치는 '72년 10월 1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무더기로 法案을 통과시킬 때 입법화됐으나 이는 事實상 소급입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기존건물에 이같은 소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면개수가 불가피 해 事實상 무리한데다 지난번 法改正 後 2년 已 지나도록 대부분의 해당건물이 改修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경과 規정의 해당고층건물은 全國에서 4천棟에 이르고 있다.

이 改正案은 또 新築·改築·移轉·修繕·構造 및 用途變更때 건축허가 동의를 必要로 하는 規제대상을 크게 완화, 消防法 施行令 제2조에 규정된 진료소, 조산원의 경우 延面積 200m² 以上을 300m² 以上으로, 車庫는 現行 延面積 50m² 以上을 200m² 以上으로 했다.

식당, 工場, 독서실, 의원의 경우, 現行法上, 크기에 상관없이 建築許可 동의를 받도록 된 것을 延面積 100m² (33坪) 以上일 때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消防施設 기준(규칙 제20조 2항) 가운데 「스프링클러·헤드」는 대상건물의 계단, 욕실, 변소, 통신기기실에는 설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